

2014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성경의 중심—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메시지 7

에베소서

(3)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가짐

성경: 엡 4:1-4, 15-16, 20-24, 31-32, 5:2, 8-9, 18

**I. 하나님의 최선의 회복 안에서 그분의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갖는 것이다 — 엡 4:1-4.**

- A. 이기는 이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그분의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하여 실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그리스도를 극도로 사랑함으로 그분을 모든 것으로 누리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 고전 1:9, 2:9-10, 12:12-13, 마 16:18-19, 창 1:26, 2:9, 계 2:7.
- B.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간구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힌 사람과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의 신분에서 말했다 — 엡 3:1, 4:1.
1. 조만간 하나님의 모든 청지기들, 하나님의 풍성들의 모든 사역자들,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갇힐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도 갇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극도로 그분을 누리기를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감옥이 되시는 정도까지 그분 안에 있게 될 것이다.
  2. 우리가 자유를 더 가질수록 우리는 더 눈이 멀게 되지만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옥이 되신다면 우리의 눈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열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높은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 엡 3:9, 행 26:19.

**II.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첫번째 항목은 우리가 신성한 속성에 의해 신성한 속성으로 강화되어 변화된 인간 미덕들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그 영의 하나를 부지런히 지키는 것이다 — 엡 4:2-4.**

- A. 성막의 마흔 네개의 널판지들을 붙들어주며 그들을 하나로 이끄는 묶는 띠는 연결하는 영,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을 한 몸 안으로 연결하는 한 영을 상징한다 — 출 26:26-29, 엡 4:3.
1. 묶는 띠는 연결하는 힘을 위하여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하나됨을 위해 금이 덧칠해졌다. 그 띠는 그리스도의 신성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성도 포함하는 그 영의 하나를 가리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 — 엡 4:2.
  2. 사실상, 하나되게 하는 띠는 성령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영(롬 8:16)과 연합된 성령, 곧 신성과 인성 모두를 포함하는 연합된 영을 상징한다.
- B. 영광스럽게 된 예수님의 하나되게 하는 영 안에는 예수님의 변화된 인성이 있다. 한 몸을 위해 한 영을 마시고 흘려 보내는 것은 사람 예수님의 영을 마시고 흘려 보내는 것이며 낮음과 온유함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기 위한 오래 참음 등의 그분의 풍성하게 된 인간 미덕들을 가지신 예수님의 인성을 마시고 흘려 보내는 것이다 — 요 7:37-39 상, 고전 12:13, 행 16:7, 엡 4:2-3.
1.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살려면 우리는 우리의 낮음과 온유함이신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계신 그분이 필요하다 낮아지는 것은 낮은 상태에 머무는 것이고 온유한 것은 자신을 위하여 싸우지 않는 것이다 — 빌 2:5-7, 마 11:29, 5:40, 막 10:45, 요 13:12-17.

2.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살려면 우리는 기쁨을 가진 우리의 오래 참음인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계신 그분을 체험해야 한다. 오래 참는 것은 몸을 위해 잘못된 대우를 받는 것을 인내하는 것이다 — 골 1:11, 24.
3.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살려면 우리는 사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짊어지기 위해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계신 그분을 체험해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주 예수님께 아주 많은 문제를 드리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를 짊어지신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을 버리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표현인 사랑 안에서 그들을 짊어줘야 한다 — 엡 4:31-32, 롬 2:3-4, 살전 5:12-18, 비교 시 73:21-26.
4.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먹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실재의 영 안에 있는 회복된 교회 생활의 실행을 위해 우리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분의 높여진 인성의 모든 미덕들이 예수님의 영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 고전 1:2, 10:3-4, 17, 12:3 하, 13, 16:13, 엡 4:3-4 상.

### III.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두번째 항목은 우리가 모든 것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다 — 엡 4:15.

- A.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모든 것 안에서 그분 안으로 자라려면 우리는 한 새 사람의 산출을 위한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며 우주적인 대치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보아야 한다 — 엡 4:15-16, 막 9:7-8.
  1. 무엇이든지, 혹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해고'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약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대치하셨다 — 막 1:1-8, 마 17:3-5, 골 2:16-17, 히 10:5-10, 11:5-6, 비교 사 22:20-25.
  2.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고용'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두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박았을 때 그분은 우리를 '해고'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종류, 곧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원래의 의도로 되돌리시면서 그분의 단체적인 걸작품인 하나님의 새로운 발명품으로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재고용'하셨다 — 창 1:26, 고전 11:7 상, 갈 2:20, 엡 2:6, 10, 15, 사 43:7.
  3. 참된 교회 생활은 생명이며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해고되고 그리스도로 대체되어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새 사람의 실재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게 한다 — 골 3:10-11, 고전 10:31.
- B.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체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접붙인 생명에 속한 문제이다 — 롬 11:17, 24.
  1.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되었고, 이러한 하나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체하신다. 대체는 하나를 요구하는 반면에 교환은 그리스도와의 하나를 무효화한다(요 15:4-5).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결시키셨기 때문에, 즉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종결되었다(롬 6:6).
  2.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하나 안에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의해 우리를 통하여 사심으로써 우리를 대체하신다.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 산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하나를 가리킨다 — 갈 2:20, 빌 1:19-21 상.

### IV.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세번째 항목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 엡 4:20-24.

- A. 요한복음 6장 57 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 곧 예수님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곧 예수님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복사판인 새 사람의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되는지를 계시한다. 주 예수님을 사람이 되시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요

17:4). 이러한 종류의 생활은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사람인 그분과 똑같은 우주적인 위대한 단체적인 사람을 낳는다.

B. 요한복음 6 장 57 절 상반절은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이다.

1. 주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는 신성한 공급의 요소와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선택하도록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요인이 되게하는 하늘에 속한 가장 풍성한 은혜를 예표하는 '버터'(미국 표준역 1901 년판, 다비의 새번역, 흠정역)와 가장 달콤한 사랑을 예표하는 하늘에 속한 '꿀'로 아버지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 사 7:14-15, 출 3:8, 요 1:14-17, 5:19-20, 8:29, 16:32, 17:26, 눅 2:12, 빌 2:8.
2. 주님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그분이 가장 풍성한 은혜와 가장 달콤한 사랑으로서 아버지를 누리기 위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버지를 향한 주님의 순종의 능력이었다 — 마 11:25-30, 14:22-23, 막 1:35, 10:45, 14:36.

C. 요한복음 6 장 57 절 하반절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의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이들이다.

1.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구로 취하면서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의 공급하는 요인으로 취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의 음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먹음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신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 사실 수 있는 공급하며 힘을 주는 요인이 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요 6:63, 렘 15:16, 롬 8:2, 12:1-2.
2.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가장 풍성한 은혜인 하늘에 속한 버터와 가장 달콤한 사랑인 하늘에 속한 꿀로 매일 먹기 위해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생활의 분이신 주님을 접촉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 출 3:8, 벧전 2:2, 시 119:103.

**V.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네번째 항목은 우리가 사랑과 빛 안에서 사는 것이다 — 엡 5:2, 8-9.**

- A.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이들,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벧후 2:4).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의 존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며(요 4:24), 하나님은 사랑이시며(요일 4:8, 16) 하나님은 빛이시다(요일 1:5). 영은 하나님의 인격의 본성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며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이다.
- B.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하는 본질로 채워져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목양하고 그분의 빛나는 요소로 우리를 채우셔서 다른 이들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과 사적인 교통을 하기 위한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 — 요 4:24, 눅 15:20, 마 5:15-16.

**VI.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다섯번째 항목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넘쳐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영 안에서 충만됨으로써 사는 것이다 — 엡 5:18.**

- A. 하나님께 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은 영 안에서 충만된 것이 흘러 넘치는 것만이 아니라 영 안에서 충만되는 길이다 — 엡 5:19-21.
- B. 영 안에서 충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넘쳐 흐름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충만과 그분의 넘쳐 흐름이 되기 위해 은혜 위에 은혜이신 그분을 계속해서 영접할 수 있다 — 엡 3:8, 1:23, 3:19 하, 롬 10:12-13, 엡 6:17-18, 요 1:16.